

치 사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법을 따르는 모든 불자들은 진리를 깨닫고 이를 모든 중생들에게 알리고자 모범을 보이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새기며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은에 보답하고자 수행정진을 멈추지 않아온 불제자들은 이 세상이 불국토가가 되도록 발길이 닿은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전법과 포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 만나는 수많은 역경에 결코 무력으로 대하지 않고, 만나는 누구든 무지에서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원하며 수행정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불교가 민족의 정신을 줄곧 주도하며 전통문화를 창달했음에도 역사 속에서 여러 굴곡과 오랜 침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이 주인인 새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이 땅에 지상불국토를 재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 모든 불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씩만이라도 계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나선다면 이 땅이 불국토로 나아가는데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 사진작가 여러분은 누구나 쉽게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친절하게 전하는 영상포교사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주제로 택한 불교행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법하게 전하는 소중한 자리이기에, 사진작품으로 다시 생동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불심으로 하나 된 불교 사진작가 여러분의 오랜 헌신을 치하하며, 더불어 새 시대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교사진공모전을 매년 지속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성장해온 불교사진협회가 창립한지 21년의 성장을 발판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한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에도 한국불교의 아름다

움을 아낌없이 알리는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승